

영유아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 및 실태조사*

김 미 숙** · 최 경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기는 일생을 통하여 새로운 체조직이 급속히 형성되는 시기로서 신진대사가 가장 빠르고, 단위 체중당 영양 요구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Pipes, 1989). 따라서 이 기간의 영양 섭취는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성장 발육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특히 유아기는 성장발육이 왕성한 반면, 소화 흡수능력이 미숙한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절대량이 성인에 비해서 적지만 단위 몸무게 kg당의 에너지, 단백질 등의 영양소 필요량은 성인보다 훨씬 크다(문수재, 1991).

일반적으로 모유, 우유가 영아의 주된 영양 공급원이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것만으로는 성장발달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최순자 등, 1971; 정영진, 1979). 영유아의 이유식이 중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유는 영아 생존의 일차적인 영양원으로써 영아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유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과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등은 생후 6개월까지 뇌세포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Isbister, 1974; Welsh & May, 1979). 그러나 생후 6개월이 되면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게 되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이유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Behrman & Vaughn, 1987).

또한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자기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지식에 따라 어린이의 영양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어머니들의 올바른 영유아 영양에 대한 지식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법의 실천에 매우 중요하다(심재영, 1991).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습득한 육아에 대한 지식정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며 유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순이, 1990).

진작부터 적절한 이유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 2000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간호사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논란은 있었으나 이상적인 이유식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험적인 근거에 의존해오고 있는 형편이다(Barness, 1990). 대다수의 어머니가 어린이에게 맞는 이유식을 따로 마련하여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유식의 단계인 유동식, 반 유동식, 고형식의 순이 아닌 곧바로 고형식인 밥을 먹이는 것이 문제이다(유혜중, 1987).

‘우리나라 도시 어머니들의 육아에 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이유식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았다(신문애, 1980).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유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조리법, 유동식, 연식, 고형식으로 바뀌는 이유식 단계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적 지도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원을 찾는 빈도는 점차 늘어가지만, 이유식에 대한 상담은 적으며, 이유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료인들조차도 이에 대한 관장은 영양사 등이 해야 할 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차옥희, 1973; 이애경, 1988).

이유식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로는 이유식의 영양과 수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기별 주의사항 및 음식 형태 등의 어머니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유식 교육과 상담에 기초가 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어머니들의 지식정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이유식 실태를 조사하여 이유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 2) 어머니의 이유식 실태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영유아 ; 영유아는 생후 1개월에서 3세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6개월에서 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이유식 ; 모유와 우유만으로 영양을 받던 영아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반고형식을 말하며 그 경도, 양, 종류를 증가하여 주는 음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영유아에게 주는 모유나 우유 이외의 음식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영유아의 건강과 이유식

이유기는 영아 후반기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유란 수유를 일시에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모유나 조제유 등으로 양육되었던 영유아에게 보충식을 섭취하도록 하여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증가시켜 정상적인 식습관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Kleinman, 1994).

최근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영양적인 측면과 신경, 위장관, 신장의 성숙정도에 따라 생후 4-6개월이 가장 적당한 이유식 시작 시기로 권장되고 있다(Hendricks, 1992). WHO와 UNICEF에서는 아기의 체중이 출생시의 2배가 되는 6kg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이유시기라 하여 이때 이유를 권장하고 있다(Beauchamp, Mennella, 1995).

최근의 추세는 모유 수유는 영유아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주식으로 하고 그 이후 1세가 될 때까지 수유를 계속하되 보충식으로 다른 음식을 첨가해 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 또는 우유 영양으로 충분하나 이 시기를 지나면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여 이유식을 첨가하지 않으면 빈혈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철 결핍성 빈혈은 철분을 포함한 세포내 효소기능을 저하시켜 영아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에게까지 행동 및 인지능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Pollit, Leibel, 1976).

모유 영양아는 1일 200-400IU의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으나 철분은 생후 6개월까지는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한 유아는 철분 흡수가 낮아지므로 철분의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혈액량이 늘면서 혈액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어서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진인상, 안현석, 안효섭, 1990).

허인무, 이성관(1970)이 7개월 이후의 영유아 5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시기별 빈혈 빈도를 보면 8개월에서 9개월은 19%, 12개월은 37%, 17개월에서 20개월은 46.5%, 21개월에서 24개월은 60%, 31개월에서 36개월은 100%를 보여 대체적으로 조기에 이유를 시킨 아이들에게서 빈혈 발생률이 낮았다.

적절한 이유식은 영아기의 흔한 영양결핍으로 알려진 단백질, 철분, 비타민 결핍 등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Calvo, Galindo, Aspries, 1992) 발달, 성숙정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해수(1968)에 의하면 보충식을 줄 시기에 적절한 음식을 먹은 영아는 보충식을 먹지 않은 영아보다 체중의 증가와 정신발달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충식을 늦게 시작한 영아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며 빈혈증, 신경증 등의 영양장애가 점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Cameron & Hofvander, 1983).

우리나라 어린이의 경우 출생시 몸무게는 양호한 편이며 모유나 조제유만으로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4-6개월까지는 국제적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으나, 이유기가 시작되면서 서구 어린이들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민성희, 손경희, 윤선, 1993).

따라서 이유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은 영아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유기가 되는 생후 3-4개월이 되는 어린이는 생리적으로도 젖 이외의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하고(정영진, 1979), 생후 4-5개월에는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가 점점 더 많아진다. 생후 6-7개월이 되면 유치가 나기 시작하여 미각도 발달해서 젖 이외의 것을 먹고 싶어한다(문영임, 1974).

이유식은 아기의 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고 입맛이 다르므로 개인에 맞춰,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이유식의 형태를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이애경, 1988).

이유식 완료는 생후 12-18개월이 좋으며 이유개시가 이를 경우 완료시기도 빠를 수 있으나 유아의 만족감과 체중증가 등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이현금, 1980).

2. 이유식에 관한 선행연구

어머니의 지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애경(1988)에서는 이유식의 필요성, 처음 시작한 이유식의 종류, 이유식 실시상 주의점 인지 정도, 이유식 조리방법, 5가지 기초식품군의 인지 정도, 이유식을 주는 시간과 조리방법을 묻는 정도에서 '실시상의 주의점을 잘 모른다'가 47.5%로 나타났고, 조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57.0%로 나타났다. 유혜종(1987)에서는 영양과 이유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을 보았는데 영양에 관한 지식, 초유에 관한 지식, 이상적인 이유식 시작시기, 처음 이유식을 시작하는 형태 등의 지식점수 20점 만점에 평균 11.76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도 많았다.

이유식 실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Fomon(1975)의 보고에서는 대다수의 미국 영아들이 생후 4주 이전에 이유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vage, Reilly, Edwards, Dumi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Glasgow 지방의 127명의 영아들의 이유식 시작시기는 평균 11주에 이유식을 시작하였고 약 7%만이

4개월 전에 이유식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홍기, 김경희, 박재옥, 이상주(1987)에 의하면 이유식 시작 시기는 3개월이 60%로 가장 많았고, 만 4세 이하의 어린이의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애경(1988)에 의하면 이유식 시작 시기는 6개월 이하가 84%로 나타났다.

윤혜봉(1991)의 연구에 의하면 이유식 시작 시기가 5-6개월이 44.0%로 가장 많았고, 김명성(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이유식 시작 시기가 4-6개월 사이가 54.9%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에 시작한 경우가 27.0%, 6개월 이내에 이유를 시작하는 비율이 81.9%였다. 만 1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어머니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귀순(1998)에 의하면 이유식 시작 시기는 3-4개월이 44.7%로 나타났다. 왕수경, 김지현(1999)의 대전지역 영유아 198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1.8%가 7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였고, 임유신(1999)의 1세- 만3세 이하의 유아를 둔 어머니 5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6개월에서의 이유식 시작은 51.3%, 1-3개월에 이유식 시작은 41.6%로 조기에 시작하였다.

또한 이유식 시행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도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는 요인으로는 젊은 엄마일수록(Savage등, 1998; Hammer, Bryson, Agras, 1999), 경제가 낮을수록(Savage등, 1998), 조제분유를 먹이는 엄마일수록(Savage등, 1998; 이승주, 1994; 류경화, 1997), 둘째 아이 이상보다 첫째 아이에서(Hammer등, 1999), 학력이 높을수록(이진희, 1977; 전승규, 1980; 김재오, 1981; 류경화, 1997)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희주(1984)의 6개월된 영아 10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영아의 발달 상태와 이유식 첨가여부, 식이 양상 등의 관계, 임유신(1999)의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실태와 유아기 비만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이유식에 대한 실천 정도나 이유식

의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유식에 대한 주의사항 및 시기별 음식선택 등의 구체적인 어머니의 지식정도 와 실천상태를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로 서울시내 소재 병원(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C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아 어머니와, 수원의 일개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적인 영유아의 이유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환자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이애경(1988) 및 류경화(1997)의 연구와 문헌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고, 이것으로 C대학병원의 외래를 방문한 영유아 어머니 20명에게 사전 배부하여 의미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소아과 병동에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인에게 내용을 평가하게 한 후,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제반 사항에 관한 10문항, 이유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25문항, 이유식에 관한 지식정도에 관한

내용 22문항으로, 총 5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8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였으며 총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205부를 자료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전산 통계로 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유식 실천상태, 어머니의 지식정도의 각각의 항목은 실수와 백분율, 산술 평균치를 산출하였고 지식점수는 20문제로 1개에 5점씩 계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지식점수와 학력, 직업, 의료인과의 상담여부 관계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대상자의 학력, 직업 유무, 수유형태와 이유식 시기, 완료 시기와의 관계, 수유형태와 어머니의 학력, 직업 유무와의 관계, 대상자의 학력 및 직업 유무와 이유식의 형태는 χ^2 test를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서울 및 수원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국한되었기에 본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이 93명(45.4%)으로 첫번째가 많았다.

아기 나이로는 13-24개월 이하가 78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6-12개월 이하가 70명(34.1%), 25-36개월 이하가 57명(27.8%)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아기체중은 2.25kg에서 4.6kg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체중은 3.2kg로 소아과학회 한국 소아 발육표준치(1992)와 비슷하였으며 현재 체중은 6.5kg에서 17kg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의 일반적 사항으로 아버지의 나이는 26-50세로 분포되어 있었고 30-34세가 104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나이로는 21세부터 40세까지 있었고 30-34세가 95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로는 대졸이 127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역시 대졸이 105명(51.2%)으로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교육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기를 돌보는 사람으로는 본인이 159명(7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식전 수유형태로는 조제분유가 105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이 73명(35.6%), 모유 수유는 27명(13.2%)으로 나타났다.

IV. 연구의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영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출생 방법, 나이, 아기체중과 대상자와 대상자 남편의 나이, 직업, 학력, 수입 정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 등을 조사하였다<표 1>.

영유아의 성별로는 남아가 107명(52.2%), 여아가 98명(47.8%)으로 남아가 많았고 출생 순위로는 첫번째가 112명(54.6%), 두번째 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5)

특 성	구 분	실수(%)
영유아의 성별	남	107(52.2)
	여	98(47.8)
출생 순위	첫 번째	112(54.6)
	둘째이상	93(45.4)
출생 방법	정상분만	111(54.1)
	수술분만	94(45.9)
남편 연령	25-29세	33(16.1)
	30-34세	104(50.7)
	35-39세	58(28.3)
	40세이상	10(4.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205)

특 성	구 분	실수(%)
남편 교육정도	중졸	2(1)
	고졸	60(29.3)
	대졸	127(62.0)
	대학원이상	16(7.8)
나이	20-24세	12(5.9)
	25-29세	74(36.1)
	30-34세	95(46.3)
	35-39세	23(11.2)
	40세이상	1(0.5)
교육정도	중졸	2(1.0)
	고졸	91(44.4)
	대졸	105(51.2)
	대학원이상	7(3.4)
영유아 연령	6-12개월이하	70(34.1)
	13-24개월이하	78(38.0)
	25-36개월이하	57(27.8)
영유아	2-2.5kg 미만	11(5.5)
	2.5-3kg 미만	63(30.7)
체중	3-3.5kg 미만	86(41.9)
	3.5-4.6kg 미만	45(21.9)
남편 직업	회사원	103(50.2)
	전문직	28(13.7)
	기타	74(36.1)
가족의 수입정도	상	5(2.4)
	중	188(91.7)
	하	12(5.9)
직업	있다	41(20)
	없다	164(80)
아이를 돌보는 사람	본인	159(77.6)
	할머니	23(11.2)
	친척	12(5.9)
	가정부	5(2.4)
	위탁기관	5(2.4)
	기타	1(0.5)

2. 어머니의 지식정도

어머니의 이유식에 관한 지식정도의 평균점수는 60점이었고 점수의 분포는 30점-85점으로 나타났다<표 2>.

점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이유식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 적절한 시기를 4-6개월이라고 답한

경우가 168명(83.2%)이었고, 이유식을 하는 이유로는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보충'이라고 답한 경우가 187명(93.0%)이었다.

이유식으로 처음 주는 음식의 형태로 미음이 라고 답한 경우는 179명(88.2%)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주는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 '순가락으로 준다'라고 답한 경우가 192명(95.0%)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주는 방법에서 순가락 사용율(54.7%)은 낮게 나타났다.

생우유를 먹이는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12개월 이후라고 답을 한 경우가 170명(85.7%)으로 나타났다. 생우유를 일찍 먹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빈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답을 한 경우가 168명(84.0%)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생우유를 먹인 시기인 12개월 후에서 91.5%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우유병을 오래 빨면 생기는 증상을 묻는 항목에서 '치아발달에 안 좋다'라고 답한 경우가 198명(97.5%)으로 정답율이 높았다.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는 음식물을 컵으로 시작하는 나이를 묻는 항목에서 6-8개월이라고 답을 한 경우가 57명(23.7%)으로 나타났으며, 8개월 이후라고 답을 한 경우가 146명(73.7%)으로 나타나 실제 컵으로 시작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처음 주는 이유식 시간은 '모유나 우유 먹이기 전'이라고 답한 경우가 46명(23.1%)으로 나타났다. 영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 결핍을 묻는 항목에서 철분 부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69명(34.8%)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칼슘부족이라고 64명(32.3%)이 답했다.

이유식 완료시기를 묻는 항목에서 정답인 12-18개월이라고 답을 한 경우가 107명(52.7%)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8개월 이후라고 답을 한 경우가 45명(22.2%)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음식을 먹이는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 과일류, 곡분류, 채소류, 생선이나 육류, 계란,

요구르트 모두에서 4-6개월이라고 답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상태와 점수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정도 및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지식 점수와의 관계를 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지식점수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 < 0.05$). 그러나 직업의 유무와 지식점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대상자의 이유식 상담여부와 점수와의 관계에서는 이유식 상담 여부에 따른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표 2> 어머니의 지식정도

특 성	구 분	실수(%)	특 성	구 분	실수(%)
시작 시기 (n=202)	1-3개월	9(4.5)	컵사용	1-3개월	0(0)
	4-6개월	168(83.3)	시작시기	3-6개월미만	5(2.5)
	7-8개월	19(9.4)	(n=198)	6-8개월 미만	47(23.7)
	8개월 이후	6(3.0)		8개월 이후	146(73.7)
이유식 이유 (n=202)	성장시 영양보충	187(93.0)	이유식	젓병	9(4.5)
	이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음	3(1.5)	주는 방법	빨대	1(0.5)
	다른 것을 요구함	11(5.5)	(n=202)	숟가락	192(95.5)
	수유하는 것이 번거로움	0		손	0(0)
처음 주는 형태 (n=199)	미음	179(88.2)	우유병을	치아발달에 지장	198(97.5)
	죽	21(10.3)	오래 빨면	무 증상	1(0.5)
	무른 밥알	3(1.5)	생기는 증상	밥을 잘섭취	2(1.0)
	밥	0	(n=203)	치아발달에 유리	2(1.0)
영아에게서 흔히 보는 영양문제 (n=198)	단백질 부족	22(11.1)	이유식의	채운정도	197(97.0)
	비타민	43(21.7)	온도	차갑게	6(3.0)
	철분	69(34.8)	(n=203)	얼려서	0
	칼슘	64(32.3)		뜨겁게	0
먹일 때 주의점 (n=187)	거부할때는 연기	139(74.3)	이유식의	소금,설탕 첨가	60(29.9)
	누워서 먹임	13(7.0)	양념	소금,설탕미첨가	122(60.9)
	젓병에 넣어서 줌	13(7.0)	(n=201)	국에 말아 줌	19(9.5)
	변이상시 그대로	22(11.7)		어른 간에 맞게	0
시기별 조리 방법 (n=155)	4-5개월: 물같이	74(47.7)	생우유조기	알레르기증가와 빈혈 발생	168(84.0)
	9-12개월: 겉죽한 쟀같이	33(21.3)	섭취않는 이유	아이가 거부함	4(2.0)
	12개월:잘게 썬 상태	28(18.1)	(n=200)	다른 음식섭취해 먹을 필요없음	8(4.0)
	18개월 이후 진밥정도	20(12.9)		잘 모른다.	20(10.0)
생우유 시작 시기 (n=198)	4-6개월 미만	2(1.0)	이유식	6-8개월미만	31(15.3)
	6-8개월 미만	5(2.5)	완료시기	8-12개월미만	20(9.9)
	8-12개월 미만	21(10.6)	(n=203)	12-18개월미만	107(52.7)
	12개월 이후	170(85.9)		18개월이후	45(22.2)
하루 3끼 식사하는 시기 (n=202)	4-7개월 미만	1(0.5)	선식이	알리지 근원을 알기 어려움	192
	7-12개월 미만	17(8.4)	부적합한	영양이 부족	190
	12-18개월미만	91(45.0)	이유	세균 오염 있음	191
	18개월 이후	93(46.0)	(중복응답) (n=762)	우유병 사용시 빨기 힘들 정답율	190 (45.0)
5가지 기초 식품골고루 넣어주는시 기(n=201)	4-6개월 미만	21(10.4)	이유식	미열있으나 식욕 있을 때	5(2.6)
	6-8개월 미만	72(35.8)	중단할 시기	실사하나 보채지 않을 때	49(25.5)
	8-12개월 미만	51(25.4)	(n=192)	구토시	112(58.3)
	12개월 이후	57(28.4)		변비시	26(13.5)
6개월 이후 주는 음식 (n=196)	쌀죽	91(46.4)	처음 주는 시기	보통 아침에	46(23.1)
	오렌지주스	40(20.4)	(n=199)	편한 시간에	12(6.0)
	채소	46(23.5)		식사 시간에	12(6.0)
	과일	19(9.7)		모유나 우유 먹이기 전	129(64.8)

<표 3> 부모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지식점수의 차이

특 성	구 분	실 수	평 균	T 또는 F값	P값
어머니 교육정도	중졸 이하	2	50	7.13	0.0001*
	고 졸	91	56.24		
	대 졸	104	63.24		
	대학원 이상	7	65.71		
아버지 교육정도	중졸 이하	2	50.00	3.11	0.027
	고 졸	60	57.55		
	대 졸	126	60.61		
	대학원 이상	16	66.56		
어머니 직업 유무	유	40	58.05	1.28	0.2916
	무	164	60.56		

* p < 0.05

이유식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육아 서적 및 잡지가 152명(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TV나 라디오, 육아 프로그램이 99명(17.2%), 상품 광고용 책자나 팸플릿이 79명(13.7%),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75명(11.1%) 순이었다. 또 소아과 의사 29명(5.0%), 육아상담 간호사가 2명(0.3%)으로 전문인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3. 이유식 실태

시작시기로는 4-6개월이 134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4개월 미만이 46명(22.4%)으로 나타나 6개월 이하가 87.8%로 나타났으며 8개월 이후는 10명(4.9%)으로 나타났다. 평균 4.9개월로 나타나 대부분이 적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시작동기로는 '아기의 성장으로 이유기가 되어서'가 173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모유량 부족으로'가 19명(9.3%)으로 나타났다.

처음 준 음식은 '과일즙'이 106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만든 미음' 56명(22.6%), '시판제품 분말이유식'은 61명(24.6%)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유식을 준후 이상 증상 반응으로는 '증상이 없었다'가 171명(84.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설사'가 12명(5.0%), '변비' 8명

(3.9%), '구토' 5명(2.5%), '두드러기'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식품으로는 '가정식'이 129명(44.8%)이었으나 나머지 항목인 '시판 과일즙', '시판 이유식', '분말 이유식', '선식', '미숫가루' 등 시판제품 모두 합하면 159명(55.2%)으로 '가정식'보다 시판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처음 줄 때의 양으로는 '먹는대로'가 82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한 숟가락이 48명(24.1%)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만드는 사람으로는 '어머니 자신'이 179명(8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는 이유는 '엄마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가 67명(37.0%), '시판 제품은 믿을 수 없어서' 48명(26.5%), '시기별 맞는 상품 이유식이 없어서' 28명(15.5%)의 순이었다. 기타의 이유로는 '아이가 잘 안먹어서'와 '제철에 맞는 신선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등이 있었다.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이유로는 '간편해서'가 78명(48.8%), '영양가가 높다고 느껴져서'가 66명(41.3%) 순이었다. 기타로는 '광고를 보고'라고 답을 하였다.

이유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숟가락 사용'이 132명(57.4%), '젓병 사용'이 94명(40.9%)으로 나타났다.

컵사용 시기로는 9개월 이후가 98명(65.8%)

으로 가장 많았고, 6-8개월이 43명(28.9%)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완료시기는 12-18개월이 65명(53.8%)

으로 가장 많았고, 19-24개월이 38명(36.5%) 이었고, 계획시기는 19-24개월이 53명(56.4%)

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8개월은 34명(36.2%),

<표 4> 이유식 실태

특 성	구 분	실수(%)	특 성	구 분	실수(%)	
시작시기 (n=205)	4개월이전	46(22.4)	주로 주는 식품 (중복응답) (n=288)	집에서 만든 것	129(44.8)	
	4-7개월이전	134(65.4)		과일즙(사판)	14(4.8)	
	7-8개월이전	15(7.3)		사판 이유식	51(17.7)	
	8개월이후	10(4.9)		분말 이유식	62(21.6)	
시작동기 (n=204)	모유량 부족	19(9.3)	처음 준 과일 (n=203)	선식, 미숫가루	32(11.1)	
	아기의 성장으로 이유기 되어	173(84.8)		사과	114(56.2)	
	의료인의 충고	3(1.5)		바나나	16(7.9)	
	남들이 해서	3(1.5)		딸기	20(9.9)	
	기타	6(2.9)		밀감	42(20.7)	
처음 준 음식 (중복응답) (n=248)	집에서 만든 미음	56(22.6)	처음 준 채소 (n=181)	기타	11(5.4)	
	과일즙	106(42.8)		시금치	67(37)	
	시판제품 (거버,하인즈 등)	13(5.2)		당근	74(40.9)	
	쥬스	11(4.4)		양배추	39(21.5)	
	분말 이유식	48(19.4)	처음 준 육류 (n=189)	기타	1(0.6)	
	선식, 미숫가루	12(4.8)		쇠고기	96(50.8)	
	기타	2(0.8)		생선	75(39.7)	
처음 나타난 이상증상 (n=203)	구토	5(2.5)	처음 시작시 횟수 (n=202)	닭고기	13(6.9)	
	설사	12(5.0)		돼지고기	1(0.5)	
	변비	8(3.9)		기타	4(2.1)	
	두드러기	1(0.5)		하루1번	98(48.5)	
	무 증상	171(84.2)	하루2번	63(31.2)		
이상증상시 대처 방법 (n=106)	기타	6(3.0)	하루3번	29(14.4)		
	증세와 무관하게 계속 줌	19(17.9)	하루4번	12(5.9)		
	증세가 없어지면 같은 음식 줌	23(21.7)	처음줄 때 양 (n=199)	한손갈	48(24.1)	
	증세가 없어지면 다른 음식 줌	35(33.0)		두손갈	45(22.6)	
이유식을 중단 무응답	29(27.4) 99	주는 때 (n=199)	세손갈	24(12.1)		
새로운 음식 첨가시 간격 (n=188)	1-2일		68(36.2)	먹는대로	82(41.2)	
	3-4일		74(39.4)	컵 사용 시기 (n=149)	아무때나	29(14.6)
	5-6일		22(11.7)		수유전	49(24.6)
	7일 이상	24(12.8)	수유중간		113(56.8)	
9개월 이후	98(65.8)	수유후	8(4)			
만드는 사람 (n=203)	어머니	179(89.2)	완료시기 (n=104)	12개월 이전	6(5.8)	
	아버지	1(0.5)		12-18개월이전	56(53.8)	
	할머니	18(8.9)		18-24개월이전	38(36.5)	
	가정부	5(2.5)		24개월이전	4(3.8)	
직접 만들어 주는 이유 (n=180)	엄마역할을 잘하기 위해	67(37.0)	계획시기 (n=94)	12개월 이전	4(4.3)	
	시판식품은 받을 수 없어	48(26.5)		12-18개월이전	34(36.2)	
	시기에 맞는 상품이 없어	28(15.5)		18-24개월이전	53(56.4)	
	기타	38(21.0)		24개월 이후	3(3.2)	
시판식을 먹이는 이유 (n=160)	간편해서	78(48.8)	생우유 섭취시작 시기 또는 계획시기 (n=175)	9개월 이전	53(28.4)	
	의사의 추천	2(1.3)		9-12개월이전	10(5.7)	
	영양가가 높아서	66(41.3)		12-15개월이전	89(50.9)	
	남들의 권유로	8(5.0)		15개월이후	71(40.6)	
	기타	6(3.8)		하루 평균 우유 섭취량 (n=104)	100cc미만	13(12.5)
주는 방법 (중복 응답) (n=204)	손가락	132(57.4)	100-500cc미만		67(64.5)	
	젓병	94(40.9)	500-700cc미만		9(8.6)	
	빨대	3(1.3)	700-1000cc미만		14(13.5)	
	손가락	1(0.4)	1000cc이상		1(1.0)	

12개월 이하가 각각 6명(5.8%), 4명(4.3%)으로 나타났다.

생우유 섭취시작 시기 및 계획시기는 12-15개월에서 89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15개월 이후에서 71명(40.6%), 12개월 이전에서 15명(8.5%)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에 대한 상담원으로는, '상담받은 적이 없다'가 134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과 의사'가 20명(10.2%), '간호사'는 1명(0.5%)으로 적었으며 기타 이웃 경험이 있는 엄마, 언니, 친정어머니 등이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유식 실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직업 유무에 따른 수유실태를 살펴보았다.

교육정도와 직업 유무에 따라 수유 방법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직업 유무에 따라 이유식 시작시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직업 유무에 따라 이유식 완료시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가정식 이유식을 주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가정식 이유식을 주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한편 선호하는 이유식은 가정식이 75.3%로 시판식 24.7%보다 많았으며 '흰죽'이 23%, '과일'이 34% '생선'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식에서는 '분말 이유식'이 11.5%로 가장 많았다.

싫어하는 이유식으로는 '야채'가 30%로 가장 많았다.

음식 종류에 따른 섭취 시작시기로는 젤스류, 과일류, 채소류, 계란 등에서 4-6개월에 가장 많이 섭취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류와 생선류는 8개월 이후에서 가장 많이 시작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밥과 곡류는 8개월 이후에서, 상품화된 이유식은 4-6개월에서 가장 많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어머니들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이유식을 주는 방법(숟가락으로 준다), 우유병을 오래 빨면 생기는 증상, 이유식을 하는 이유(성장시 영양보충을 하기 위해서) 등에서 90% 이상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이유식을 주는 시간(모유나 우유 먹이기 전), 영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문제(철분부족), 컵 사용시기, 이유식 시기별 조리 방법의 상태, 아이의 시기별 주는 방법, 시기별 음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선식이 이유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이유식을 중단하여야 할 때(토할 때) 등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위의 지식이 낮은 항목중 영양문제는, 이승주 등(1994)의 연구에서도 철분에 대한 중요 인식이 0.3%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에 행해진 정운자(1995)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철 결핍성 빈혈의 빈도가 6.0%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철 결핍성 빈혈아중 36%만이 6개월 이내에 이유식을 하고 있었고, 10.5%에서는 2세까지도 이유식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어 영아기의 철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유식에 양념의 첨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소금이나 설탕 등의 조미료를 안 넣는다'라고 정답율이 양호하였으나, '조금 넣는다'라고 답한 경우도 29.9%로 나타나 이 시기에 너무 짜게 주면 후에 고혈압이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음식 고유의 맛을 잘 알지 못해 편식을 할 우려가 있다.

이유식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육아서적 잡지가 26.4%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경우는 5.3%로 낮게 나타나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유식 실태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이유시기인 4-6개월에 시작한 비율이 65.4%, 4개월 이전에 시작한 경우가 22.4%로 나타났으며 8개월 이후는 4.9%로, 전에 비해 이유식 시기가 빨라지고 있었다.

이유식 시작시기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직업유무 등과의 관계 등에서는 심재경(1991)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이유시기가 빠르다는 보고나, 이진희(1977), 전승규(1980), 김재오 등(1981), 윤혜봉(1991), 류경화(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력이 높을수록 이유식 시작시기가 빨랐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 고졸과 대졸의 비율이 전체의 95.6%로 나타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이용하는 식품으로는 가정식 이유식(44.8%) 보다 시판식(55.2%)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영래(1988)의 집에서 만든 것 30.0%, 시판식 47.5%, 이에경(1988)의 주로 상품화된 것을 먹인다가 58%, 김효진등(1993)의 상품화된 것을 먹인다가 73.6%로 나타나, 최근에 들어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상품화된 것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이유식은 인스턴트 식품의 만연과 '편리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계속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아기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서 만들어 먹이는 쪽에 대한 홍보 및 조리방법 등을 소개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가정적인 것처럼 조리해서 아기의 상태에 맞추어 주문 판매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처음 이유식을 준 후에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증상이 없었다'가 대부분(82.4%)으로 나타났으나 설사, 변비, 구토, 두드러기 등의 증상도 나타나 이상 증상시 대처방법도 교육 및 상담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유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숟가락 사용률이

54.7%로 젓병 사용률 4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류경화(1997)의 62.4%보다 낮아 젓병 사용률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식 점수에서는 '숟가락 사용한다'라는 답이 95.0%로 나타나 실제로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연구들과 비교할 때 이유식 완료시기는 이진희(1977)의 12-18개월에 도시에서 64.1% 농촌에서 74.6%와, 방홍기 등(1987)의 돌 때가 59%, 이승주 등(1994)의 12개월 이전이 39.4%, 13-18개월이 29.4%로 완료시기가 빨라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늦게 나타났다. 이는 우유병 사용 기간이 길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생우유 섭취시기 및 계획시기는 12개월 이후가 전체 91.5%로 나타났고 평균 우유 섭취량도 395cc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식정도에서도 생우유를 12개월 이후에 먹인다고 답을 한 경우가 85.9%로 높게 나타났다. 생우유를 일찍 먹이지 않는 이유에서도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빈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답을 한 경우가 84.0%로 나타났으나 '잘 모른다'고 한 경우도 10%나 되었다. 변성운, 박미란, 전인상(1993)에서 생우유 과량 섭취(1일 1000cc 이상을 섭취)한 군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고 이들은 인지 및 행동 발육에 지대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생우유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는 잘못된 지식과 간편하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생우유를 이유식으로 섭취시키는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좋아하는 이유식에서는 시판식보다 가정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어머니들이 간편하다는 이유(48.8%)와 영양가가 높다는 이유(41.3%)로 시판식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싫어하는 이유식으로는 야채(30%)를 가장 싫어하여 영양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조리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보면 지식은 높으나 실천이 안되는 것으로 '숟가락 사용', 지식과 실천 모두 낮은 것으로는 '컵사용 시기', '처음주는 이유식 시간', '이상증상시 대처방법' 등이 있다.

이유식에 대한 상담원으로는 상담한 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아과 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인에 의한 상담이 너무 적어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간호사는 외래에서나 병동에서 영유아의 어머니들을 접하기가 용이하고 우선적으로 상담문의를 받는 전문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들 즉 이유식을 주는 방법, 처음 이유식을 주는 시간, 이유식 종류별 시기, 영양문제인식 등을 토대로, 이유식에 대한 지식과 실천정도를 모두 높이기 위하여는 대중매체나 의료기관의 육아상담실, 예방접종실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와 실태를 알아보고 이유식 프로그램 개발과 이유식 상담 간호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로 서울시 소재 병원(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C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 어머니와 수원시 소재 1개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였고, 모두 205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8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였다.

1. 어머니의 지식 점수가 낮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컵사용 시기가 23.7%로 나타났으며, 처음 주는 이유식 시간은 23.1%, 영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문제는 '철분 부족'이 34.8%로 나타났고, 이유식 완료시기는 52.7%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른 이유식의 조리방법은 47.7%, 하루 3끼를 식사하게 되는 시기는 45.0%, 5가지 기초 식품을 골고루 넣어 주는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 25.4%, 6개월이 지나서 주는 것이 좋은 음식을 묻는 항목은 20.4%, 선식이 이유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모두 고르는 항목은 정답을 맞춘 비율이 45.0%, 이유식을 중단하여야 할 때는 '토할 때'가 58.3%로 나타났다.

2. 이유식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육아서적 및 잡지가 가장 많았고 소아과 의사가 29명(5.0%), 육아상담 간호사가 2명(0.3%)으로 나타났다.

3. 수유형태로는 조제분유가 105명(51.2%), 혼합이 73명(35.6%), 모유수유가 27명(13.2%)으로 나타났다.

4.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적기인 4-6개월이 134명(6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지식상태에서도 83.2%로 나타났다.

5. 주로 이용하는 식품으로는 가정식이 129명(44.8%), 시판식이 159명(55.3%)으로 시판제품을 주로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학력과 가정식 이유식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6. 이유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실제 '숟가락 사용'이 132명(57.4%)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지식점수'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한다고 95.0%로 높게 나타났다.

7. 이유식 완료시기는 적기인 12-18개월이 53.8%로 나타났고 이유식 완료시기 계획으로는 19-24개월이 56.4%로 나타났다. 지식점수에서도 12-18개월에서 52.7%로 나타났다.

8. 어머니의 교육정도 및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지식 점수와의 관계를 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도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9. 대상자의 이유식 상담여부와 점수와의 관계에서는 이유식 상담 여부에 따른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결론적으로 이유식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지식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평균 60점), 개월 수에 따른 음식이나 주의해야할 음식, 이상 증상시 대처 방법, 철분영양의 인식 등의 지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해도 실천이 잘 안되는 사항(숟가락 사용, 이유식 완료시기)이 있다. 특히 이유식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간호사들이 이유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제언

1. 이유식 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이유식과 관련하여 아이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이유식 실천정도와 영유아의 식습관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경미 (1993). 발달장애아이들과 정상아이들의 이유식 시작시기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수, 신상만, 한동관, 문수자 (1985). 한국 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28(10), 8-12.

김경희, 이근래, 이현, 서운석, 은백린 (1993). 이유식이나 보충식 공급없이 장기간 모유영양을 취한 빈혈아의 고찰. 소아과, 36(4), 528-553.

김명성 (1993). 일개 종합병원을 내원한 영유아의 이유실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이 (1990).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도에 따른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오, 이효진, 안돈희, 손근찬 (1981). 유아 보건실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영유아 보건에 관한 조사. 소아과, 24(1):1-12.

김효진, 박영숙 (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23, 377-96.

류경화 (1997). 영아기(6-18개월)의 이유식 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재 (1991). 영양과 건강. 신광출판사.

민성희, 손경희, 윤선 (1993). 국내식품을 이용한 이유식 개발에 관한 연구(1): 이유식의 개발과 성분 및 영양소 분석. Korean J Soc Food Sci, 9(2), 99-104.

민용식, 박재옥, 신상만, 이상주 (1993). 영유아 상담실에서 선별한 9개월 영아의 빈혈에 대한 연구. 소아과, 36(11), 1516-1523.

박용원, 차홍대, 강진무 (1991). 일부 농촌 지역 영유아의 이유실태에 관한 조사. 계명의대 논문집, 10:307-320.

박혜련, 임영숙 (1999). 이유기의 이유식 섭식 방법이 학령전 아동의 식습관 시호 및 철분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2(3), 259-267.

방홍기, 김경희, 박재옥, 이상주 (1987).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30(3), 266.

변성윤, 박미란, 전인상 (1993). 생우유 과량 섭취가 유아기 철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소아과, 36(7), 968-972.

신문애 (1980). 우리나라 도시 어머니들의 육아에 대한 의식조사. 가톨릭 의대논문집, 32.

왕수경, 김지현 (1999). 대전지역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실태조사.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 4(4), 489-495.

유혜중 (1987). 이유기 어린이 어머니의 이유에 관한 지식 및 이유와 식이의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래, 방문혜, 방홍기, 이강일, 차학주, 박재옥, 이상주 (1988).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소아과, 31(7), 863-872.

유혜봉 (1991).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 실태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순 (1998). 영유아의 수유양상 및 이유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주, 박재옥, 손창성, 이해란, 신재훈, 정해운, 김승일 (1994). 수유실태, 이유실태조사. 소아과, 37(12), 1643-1667.
- 이애경 (1988). 영유아의 이유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금 (1980). 우리나라 이유식의 시간. 소아과 학회지, 23(2), 24-40.
- 임영숙 (1996). 이유식 먹이는 방법이 유아의 영양상태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유신 (1999). 영유아기의 수유 및 수유실태와 유아기 비만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승규 (1980). 어린이의 영양 개선책. 소아과, 23(2), 17.
- 정운자 (1995). 영유아의 철결핍성빈혈에 대한 연구. 소아과, 38(9), 1253-1259.
- 전인상, 안현석, 안효섭 (1990). 생우유 과량 섭취와 관련된 소아 철결핍성 빈혈의 고찰. 소아과, 33(10), 1374-1380.
- 최진영 (198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유의 실태와 문제점. 소아과, 23(2), 3-11.
- 황은미 (1998). 이유식의 이해: 의미, 기능, 이유실태 문제점 제시. 식품영양학회지, 12.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74). Committee on nutrition. Salt intake and eating patterns of infants and children in relation to blood pressure. pediatrics, 53, 113-121.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3). Committee on nutrition, supplemental foods for infants. In Pediatric nutrition hand book 3rd ed. Barness La(ed). Ek Glove village, 11.
- Anderson, G. H. (1985). Human milk feeding. Pediatrics clinical north America, 32, 335-53.
- Barness, L. A. (1990). Basis of weaning recommendation. J. pediatrics, 45(5), 117.
- Beauchamp, G. K., Mennella, J. A. (1995). Early feeding and the acquisition of flavor preferences in long term consequence of early feeding from the 36th Nestle nutrition workshop. Nestle nutrition services, 23-25.
- Behrman, R. E., Vaughan, V. C. (1987).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3th.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113
- Calvo, E. B., Galindo, A. C, Aspres, N. B. (1992). Iron status in exclusively breast-fed infants. pediatric, 90, 375-379.
- Cameron, M., & Hofvander, Y. (1983). Manual on feeding infant and young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110-127.
- Fomon, S. J. (1993). Recommendation for feeding normal infants. In nutrition of normal infants. Mosby, St Louis, 455-458.
- Hammer, Lawrence-D., Bryson, Susan, Agras, W.-Stewart (1999). Development of feeding pediatrics during the first 5 years of lif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3(2).
- Hendricks, K. M., Badruddin, S. H. (1992). weaning recommendation. The scientific basis, Nutrition review, 50, 125-133.
- Kleinman, R. E. (1994). Learning about dietary variety. The first steps. Ped

Basics, 68, 2-11.

Lindenberg, C. S., Artola, R. C., Estrada, V. J. (1990). Determinants of infant weaning: a multivariate approach. Int.J Nurs Study, 27(1), 35-41.

Marlow, D. R. (1988). Testbook of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Co.

Pipes, P. L. (1989). Infant feeding and nutrition, In nutrition in infancy and childhood 5th ed. Times Mirror/Mosby.

Raphael, D. (1982). Weaning is forever. Lactation Rev, 6, 1-10.

Savage, S. A., Reilly, J. J., Edwards, L. A., Purnin, J. V. (1998). weaning practice in the Glasgow longitudinal Infant Growth study.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79(2), 153-6.

- Abstract -

Key concept : Weaning Diet, Infant, Mother

A Study on the Mother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the Infant Weaning Diet

Kim, Mi Sook* · Choi, Kyung Soo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basic materials that help the nursing of the infants and consultation of childcare by examining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the mothers about the weaning diet.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205 mothers with infants(6-36 months) who visited two hospitals or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ho were living in one apartment Suwon area between July. 7. and September 10, 2000.

The 5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collecting the data and SAS program was used to analyse th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tems of low score in the result of the knowledge data were as follows.

[Initial weaning time, the important nutritional problem in infant, considering factor during feeding, the relation of proper weaning food & age, the time of used by cup, to apply of proper species in weaning food, the time of completing weaning, the time of stopping weaning at abnormal sign, and the inappropiate reason of dry mixed powdered food (Sunsik) as a weaning food.]

2. Higher educated mothers presented more high score than lower educated mothers in the knowledge about the weaning. (p<0.05)

3. Before the weaning, more mothers were using the commercial milk (51.2%) than the breast milk (13.2%).

4. Mothers get the knowledge about the weaning from the infants care book of cook books(26.4%).

68% of mothers had not received any consulting service with regard to the

* Nsg.Dept.Yong-San Hosp.Chung-Ang Univ.

** Nsg.Dept. Med.College,Chung-Ang Univ.

weaning, 10.2% of them consulted Pediatrician about the weaning and 0.5% of them with nurse.

5. Most mothers began supplementary food, from four to six months (65.4%).

the ratio was about the same as the ratio of mothers who knew the appropriate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food(83.2%)

6. The main solid food was commercial food, not home-prepared food.

7. Higher educated mothers used home-prepared weaning food more often than lower educated mothers($P < 0.05$).

8. The used rate by spoon was 57.4%, but the rate of mother's knowledge data was 95.0%.

9. The time of completing the weaning was in 12-18 months(53.8%).

It is similar to the mother's knowledge data(52.7%)

Conclusion ; According to knowledge data, it turns out that most mothers know moderately about the weaning (average 60/100). However their knowledge and practice on the methods & procedures on the weaning were inadequate.

Especially, most mothers did not consult with those qualification about the weaning. Therefore, the role of the nurse as a provider of information on the weaning should be emphasized with varied educational programs in many health care center.*